

계간 철학과 현실

127
2020
겨울

특별좌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장희의, 최재천, 신범식, 박영준

칼럼

기후변화로 무너지는 탄소문화 이덕환

기후변화와 코로나 홍윤철

기후변화와 세 개의 도덕적 폭풍 김명식

기후와 인간의 끝나지 않을 동행 박혜정

기후위기와 도시의 대응 리빙랩 사례 신상범

나의 삶 나의 길

철학적 질문, 신학적 행동(2)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살아온 삶 서광선

철학문화연구소

왜 의학에 철학이 필요한가?

최종덕,『의학의 철학: 질병의 과학과 인문학』(CIR, 2020)



진교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철학박사

저서:『철학적 인간학 연구(1)』,『철학적 인간학 연구(2)』,『환경윤리: 동 서양의 자연보전과 생명존중』,『의학적 인간학』,『현대사회윤리연구』,『행복한 삶의 길』 등 철학적 인간학, 의철학, 환경윤리학, 사회윤리학, 문화윤리학, 생명윤리학, 직업윤리, 종교철학, 노년철학에 관한 450여 편의 논문(글)이 있음.



왜 의학에 철학이 필요한가?

최종덕,『의학의 철학: 질병의 과학과 인문학』(CIR, 2020)

진교훈

들어가는 말

『의학의 철학』의 저자 최종덕 교수는 학부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물리학의 근본문제를 파고들다가 과학철학을 공부하고, 동시에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생물학, 의학, 철학을 공부한 분이다. 그는 그동안 연구해온 것으로 2014년에 『생물철학』을, 금년에는 그의 평생의 연구결과를 집성한 643쪽 분량의 『의학의 철학』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서평자가 특히 공감하는 것은 최 교수가 저술한 『의학의 철학』은 인생의 ‘생로병사’를 다 다루는 통합 학문이어야 할 의학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근대 이후 서양 의학은 의과학(醫科學)으로 발전하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루어야 할 폭넓은 학제적인 접근을 외면하고, 마치 자연과학의 한 분과학에 불과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의철학(醫哲學) 연구의 방향과 관점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인식론

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 인간을 총체적으로 성찰하는 인간학적인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성찰해 볼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적인 사고를 견지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의철학을 주로 인식론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학의 영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철학으로 전개해 나간다. 의철학이란 좁은 의미의 전문적인 철학자만의 특별한 사유구조의 소산물이 아니며, 의학자만의 고유한 영역도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는 의철학을 넓은 의미의 철학과 의학이 만나는 접점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갈등, 병원과 의료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 과학과 임상에 대한 지식론적 갈등, 문화와 인류에 대한 역사적 갈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갈등을 풀고 싶어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의철학 공부의 주체”(57쪽)라고 말하며, 종장에서 의철학은 “의학을 접근하는 플랫폼”(550쪽)이며, “질병과 삶과 건강과 죽음을 이해하는 현상학적·해석학적 플랫폼”이며, 의철학을 넓은 의미의 철학과 의학이 만나는 접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의 의학의 철학은 ‘인문의학’ 또는 ‘의학적 인간학’이라고 말하는데, 서평자도 이러한 표현에 공감한다.

이 책은 의학과 관련된 물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특히 의철학을 이론적인 면에서 연구하려는 분들에게 저자가 섭렵한 풍부한 자료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서평자는 우선 저자가 쓴 이 책 전체의 흐름을 개관하고, 끝으로 이 책 전체에 대하여 총평을 하려고 한다.

제1장에서 저자는 의철학의 고유성에 대한 논쟁과 인문학의 과제를 논한다. 저자는 의철학의 고유한 영역의 유무에 대한 논쟁을 검토

하면서 의철학의 고유영역이 존재한다는 논거를 규명하려고 한다. 저자는 의철학이란 넓은 의미의 철학과 의학이 만나는 접점이며, 질병에 대한 논의와 질병의 현상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한다. 의철학의 고유영역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펠레그리노는 환자-의사의 관계를 지향하는 의료인의 임상행위는 의과학만을 통해서도, 사회의학만을 통해서도, 또한 휴머니즘만을 통해 충족될 수 없으며, 의과학과 사회의학 그리고 인본주의 의학이 합쳐져야 하되, 그 사이에 의철학이 접착제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보다 더 나아가 의철학의 과제를 의사와 환자만의 관계만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를 포함한 인간 일반의 인간본성론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템시는 의철학의 고유성이란 의료윤리, 환자-의사 관계성, 인식론과 심신론, 형이상학과 세계관, 그리고 인간본성론을 포괄한 영역을 창출한다고 한다. 저자는 이 견해를 적극 지지한다. 서평자도 이에 공감한다.

저자는 현대 의과학의 기반인 생의학 모델이 인간을 대상화하며, 병원이 제도화됨으로써 탈인간화 현상이 드러나게 되고, 인간으로서 환자를 돌보는 돌봄의 의학, 즉 의학 본연인 인술이 점점 축소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그래서 그는 일반화된 의과학이 개별 환자에게 적용될 경우 의료과실을 초래하게 됨을 지적하고, 임상의학에서 의료과실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반성이 요청되며, 의학은 과학의 일반화를 지나치게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이론적 의과학과 현장 임상의학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는 겸손한 의과학을 제창한 고르비츠와 맥킨타이어를 소개한다.

저자는 이어서 의학에서 인본주의를 요청하는 인본의학 모델을 고찰한다. 그는 먼저 의학에서 인본주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살펴본다.

첨단 과학에 기반한 진단과 치료가 의료계를 지배하면서 병원에는 기계만 존재하고 기계를 대행하는 의료인과 질병체로만 인식되는 환자만이 존재한다는 비탄이 나오게 되고, 병원시설은 커지지만 정작 중요한 환자를 돌보는 돌봄의 인본주의적 의료가 상실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의학에서 인본주의 의학이 대두되는 과정을 고찰하면서 오슬러, 캐셀, 시든코프스키, 슈바르츠의 인문의학 모델을 살펴본다. 요컨대 의학에서 인본주의는 환자의 인격성을 존중하며, 의료인과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상호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어서 샤론의 서사의학을 성찰한다. 서사의학은 환자와 의료인 서로의 질병 체험 이야기를 인지하고 해석하며 감동하는 실천을 통해 질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환자를 인지하고 공감함으로써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건강관리로 이끌 수 있는 바람직한 의학이라고 본다. 그 다음 저자는 마컴의 통합지향 의학을 고찰한다. 통합지향 의학은 과학주의와 인본주의가 결합된 파토스 지향의 통합모델이며, 공감과 직관을 잊지 않고 의사-환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본의학모델이다. 저자는 이 통합모델을 발전시킨 커닝엄, 캐셀, 먼슨의 입장을 또한 섭렵한다.

제2장에서 저자는 의학적 추론을 상세하게 검토한다. 저자는 방법론으로 본 가설연역론과 귀납추론, 인식론으로 본 추론유형(논리추론과 상황추론), 존재론으로 본 추론유형(근연 인과추론과 다중 인과론), 우회적 인과추론과 직접적 인과추론을 서로 대비(對比)해서 검토한다. 그는 이어서 임상추론을 검토한다. 인과성, 연관성과 상관성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이 인과성이 진화한다고 본다. 그는 인간의 신체는 완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에 인간은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어서 의학적 추론을 진단추론과 판단과 의사결정구조로 설명한다. 진단이란 질병을 인지하는 추론과 판단의 절차이며, 환자의 병증과 징후를 통해서 판단하는 병리적 요소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는 진단추론의 문제점을, 특히 진단오류를 여러모로 살펴보고 오류추론을 논하며, 역학조사와 발견술의 추론과 인공지능의 의학적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그는 인공지능이 임상에 활용되는 범위만이 아니라 인공신경망 개념을 통한 의료인공지능의 발달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3장에서 저자는 분류의학과 의학실재론 논쟁을 다루면서 존재론과 본질주의를 벗어나려는 유명론과 실재론을 인식론적인 면에서 살펴보고, 근대 의과학과 현대 분류의학의 배경을 검토하고, 질병분류는 정신질환을 예로 들면서 열린 자세를 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제4장에서 저자는 질병관의 역사와 질병 모델을 살펴본다. 저자는 질병을 이해하는 다양한 모델, 과학주의 생의학 모델, 문화주의 모델을 검토한 후, 과학주의와 문화주의를 결합한 통합주의 모델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 저자는 의료인류학과 건강생성 모델, 공중보건 모델을 살펴본다. 저자는 건강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한다. 그는 특히 WHO가 기획한 “모든 이를 위한 건강증진”을 참고하면서 건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온전한 웰빙 상태를 말한다.”

제6장, 제7장, 제8장 세 장에 걸쳐 저자는 진화론에 관한 자신의 오

랜 기간의 연구를 망라하여 보여준다. 저자는 이 세 장에서 의과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읽어야 할 풍부한 자료를 제시해준다. 진화론의 역사, 진화의학의 배경과 기초론, 진화의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 진화의학과 임상의학의 관계 등을 상론한다.

제9장에서 저자는 면역의학의 철학을 논한다. 저자는 면역학적 사유체계의 철학적 고찰을 하면서 면역학의 존재론, 면역학의 인식론, 면역의 특성과 주요개념을 검토한다. 그는 면역의학의 사례를 논하면서 항생제의 내성, 위생가설, 면역논리의 대항관계인 돌연변이와 기생체를 논하고, HIV 사례연구를 하면서,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관심사인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와 대중내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공존의 존재론을 논하면서 면역학적 사유, 면역학적 생태주의, 숙주와 기생체의 공존성을 살펴본다.

제10장에서 저자는 노화방지의학에서 노화의학을 논하고 있다. 이 10장은 오늘날 고령화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노인학, 노인병학, 노년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꼭 읽어 보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노화와 관련되는 문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인간의 장수 욕망, 노화와 죽음의 관계, 인간의 수명과 텔로미어 이론의 한계, 칼로리 제한 이론과 활성산소이론의 문제점, 노화의 진화론적 해석의 논란, 발생학과 후성유전학에서 본 노화를 살펴본다. 그는 노화의학의 특징들을 논하면서 노화의학의 두 가지 양상, 즉 연쇄관계의 중층성과 상반관계의 중층성을 살펴본다. 요컨대 노화 요인들은 상호간 연쇄적이고 상반적이거나 보완적인 상관성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역사관성의 특성을 노화관계의 중층성으로 표현한다. 그는 이어서 몸의 개방성을 거론하면서 건강한 노화의 길

은 간단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추상적 관념에서 벗어나며, 편향에 빠진 자기권위를 버리고 낯설어지는 것에 다시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것을 피하지 않으며, 삶의 연속적 스펙트럼 한 편에 있는 나의 늙어감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왜 노화방지의학은 이제 노화의학으로 가야 하는가를 노화의학의 철학으로 마무리한다. 그는 노화를 생의학적 이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문의학적으로 실존의 삶에 초점을 둔다면, 노화를 걱정하는 환자도 행복하고, 그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도 행복하다고 본다. 서평자는 이 노화의학의 철학을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노년철학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11장에서 저자는 의과학과 의철학의 접점을 논한다. 그는 분석과학적인 의과학과 해석학적인 의철학을 대비해 보고, 전자를 설명장르로, 후자를 이해 장르로 본다. 그는 의과학의 한계를 자연과학이론의 논거(論據)인 설명과 분석의 한계와 관련시켜 검토한다. 그는 인간의 신체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면서, 환자를 설명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해석학적 의철학이라고 본다. 그는 이해의 철학, 즉 해석학을 고찰하고 환자의 질병을 매개로 하여 의사와 환자가 대화하는 것이 곧 치료(치유)이며, 치료의 핵심은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 해석학자 가다머를 소개한다. 그는 이어서 의료해석학과 더불어 의료현상학을 논하면서 마컴의 ‘몸의 현상학적 모델’을 소개한다. 마컴은 사람은 물리적인 몸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과학의 기계화된 신체를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체로 전환함으로써 의학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끝으로 저자는 의철학은 의학을 접근하는 플랫폼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기계과학 중심의 생의학 모델을 중시하되, 반성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인문의학 모델이 삶의 거울로 요청된다고 하면서, 플랫폼으로 의학을 이해한다면 의과학과 철학적 인간학은 서로 충돌되거나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질병과 삶과 건강과 죽음을 이해하는 현상학적·해석학적 플랫폼이라고 말한다. 의철학 플랫폼에서 정상과 비정상은 차별되지 않으며, 환자와 의료인의 소통이 넓혀지며, 해석 장르와 분석 장르는 서로 충돌되지 않으며, 의학과 의료인문학은 대립되지 않으며, 과학과 철학이 서로 대화할 수 있다고 마무리한다.

저자는 의학의 실제와 본질을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하여 과학과 철학의 역할이 무엇이며, 의철학의 과제를 규명하는 것을 ‘의학의 철학’으로 보고 있다. 이 책은 의철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연구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의철학계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쾌거라고 서평자는 본다. 의철학에 대한 관심과 관점은 다양하기 때문에 한 권의 책에 그 모든 관심과 관점을 담을 수는 없겠으나, 의철학의 인식론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문의학이 지향하는 의학적 인간학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저자의 당초의 구상과 또 의철학의 이론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도 좀 더 상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서평자는 가진다. 최종덕 교수가 다른 기회에 평자의 바람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한정된 지면으로 말미 암아 서평을 마친다.